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친구인문 양식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
(엢림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총신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조선근

새벽을 깨워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시매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증되었고 내 마음이 확증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이 겹치어다 비바야, 수금아, 겹치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 46:5 / 시 57:7-80)

충현 의료인 선교의 밤

60여명의 의료·선교 관계자 모여 선교역량 모으기로 다짐

지난 3월 28일(화) 저녁, 칼빈홀에서는 제1회 충현 의료인 선교의 밤이 열렸다. 1부 예배 후 2부 의료인 선교의 밤은 이중석 장로(의료



로 선교지향적인 교회의 방향에 의료인들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고, 참석한 의료인들은 본인의 사정에 따라 2000년도 혹은 2001년도

선교부 회합)의 행사취지와 배경 설명 및 의료선교 슬라이드 상영, 단기 의료 선교 계획 간중(수단과 르완다)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날 참석한 모든 관계자들은 총 60여명이었으며, 이중 의료인은 20여명의 의사를 포함하여 총 45명이었다. 김의철 선교위원장은 우리교회에서 처음으로 가지는 의료인 선교의 밤에 담긴 큰 의미를 강조하면서 앞으

로 단기선교에 참가할 것을 다짐하였다. 선교위원회 의료선교부에서는 우리 교회에 소속된 의료인 130여명 전원의 의료를 통한 선교활동에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교회가 추진해 가고 있는 단기선교를 중심으로 한 개척선교를 위해 모든 의료인들이 '길을 여는 자'의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교구영성훈련 시작

4월 6일(목) 1·10교구

전반기 교구영성훈련이 4월 6일(목) 1교구와 10교구로부터 시작된다. 교구영성훈련을 통해 교구가 든든히 세워지고 성도간의 교제가 돈독해질 뿐 아니라, 교회를 위한 기도가 뜨거워져서 교구영성훈련이 교회의 영적 쇄신과 부흥의 불씨가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이 기대된다.

외선부

매주일 계속되는 부흥

외선부(외국인선교부)가 매주일 교회를 찾는 새가족들로 활발하게 부흥하고 있다. 계속되는 심방과 교사들의 헌신적인 전도와 양육, 나라별로 특화된 예배실시 등을 통해서 외선부를 찾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팔복할만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외선부에서는 중국인 제제들을 위해서 중국어 설교자를 초빙하여 말씀을 전하도록 계획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급격히 늘어나는 식구들을 위해 동시통역 장비 및 대형버스 등을 지원하여 그들의 필요에 부응하고 있다. 교국을 떠나 가난한 심령으로 지내는 그들의 영혼이 복음에 젖어질 수 있도록 성도들의 사랑스런 영접과 관심, 기도가 계속되도록 바라고 있다.

외선부교사모임

매 주일 눈에 띄게 부흥하고 있는 외선부에서는 교사충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선교위원회(선교관 4층, 구내전화 356번)로 연락하시거나 직접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

5월(수)요일 2부 예배후 당회실

군전도회

군전도회는 4월 1일(토) 육군 30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진행되는 세례식(수세 대상자 신병 230명)을 지원키로 하여 당일, 관계자들이 방문하여 세례식을 거행하였다. 군전도회는 그 밖에도 4월 3일 우리교회 국제회의실에서 군복무보상 수련회를 가질 예정이며 4월부터 12월까지의 육군 25사단에서 거행될 전 중세례식을 9월에 걸쳐 지원할 예정이다. 군복음화를 통해 젊은이들을 하나님의 장병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계속되는 사역을 위한 중보기도가 요청된다.

김정화 권사 교통사고사



변함없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을 다해오던 김정화 권사(6교구, 사진)가 화요일 교회인 회 직후 교회버스에 치여 운화사를 당했다. 모든 집회가 끝난 후, 성도들이 버스에 거의 탑승한 상태에서 김권사는 화장실에 다녀와 버스에 올라타려 했고, 버스는 길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봉차들을 피해 후진하던 중, 운전자(임춘식 집사)의 부주의로 김권사가 앞바퀴에 치인 것이다.

교회는 불의의 사고로 부름을 받은 김권사의 별세에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김권사의 남은 자녀들(안경화, 안용찬)을 위한 성도들의 기도과 위로로 당부하고 있다. 그리고 갑작스런 사고 앞에서도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는 남편을 위해 적절한 보상을 통해 위로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직키로 하였다.

예배시간 변경안내

하절기를 맞아 4월24일 수요일 2부 예배와 금요일안침례 시간이 30분씩 늦추어집니다. 따라서 4월 5일 수요일 2부 예배와 4월 7일 금요일안침례부터는 예배와 집회가 각각 7시 30분에서 시작됩니다.

알립니다



위임목사 피습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최관용(가명: 최요한, 사기전과 23번)이 최근까지

현정남전도사를 통해 각 성도들의 사업장 등을 방문하면서 선교비인 설립의 명목으로 선교헌금을 요청하고 받은 일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에, 성도님들 중 본의아니게 이 일에 연루된 분들은 사실을 교회에 알리셔서 최관용의 모든 사기행각이 명백하게 드러나 사건이 명백하게 종료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만 감사하겠습니다.

제1회 주간충현 신앙수기 공모 (다음주말 마감)

주간충현에서는 2000년도를 맞아 충현의 모든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신앙수기를 공모합니다. 큰 주제는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 큰 주제를 중심으로 1)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고마운 분을 기억하면서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되었는가에 대하여 서술도 좋고 2) 우리 가정의 믿음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우리 가정에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쓰셔도 좋습니다.

21세기에도 우리들의 삶의 주제는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이런 신앙수기 공모를 통해 충현의 성도님들과 모든 가정들마다 견고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복음을 얻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찾아오신 예수님'

- 주제: 큰 주제-찾아오신 예수님
작은 주제
1)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고마운 분
2) 우리 가정의 믿음의 뿌리 찾기
* 글의 제목은 임의대로 붙여도 됩니다.
- 기간: 2000년 4월 9일까지
- 분량: 원고지 10-15매 또는 A4용지 1~2매
- 대상: 충현의 성도 누구나
- 시상: 1, 2, 3등 및 수인의 가작을 선정하여 시상합니다.
- 보낼날: 주간충현 편집실(선교관 303)
- 사무국 첨부(교육관 1층)
- 심사결과: 4월 30일까지 주간충현에 발표합니다.
- 자세한 문의: 구내전화 349번 주간충현 편집실로 하시면 됩니다.

WONDERFUL WORDS

(1 Timothy 1:15&16)

"Here is a trustworthy saying that deserves full acceptance :
Christ Jesus came into the world to save sinners — of whom I am the worst."

Born in the city of Tarsus, the chief city of the Roman province of Cilicia, Paul was a Jew in terms of his circumcision, Benjamite lineage, Hebrew ancestry, and Pharisaic training. He religiously studied and obeyed the Law. He was a top scholar among his contemporaries. More importantly, he was a heartfelt Jewish believer who truly loved God. Without doubt, he was one of the most ethical and pious men of his day—a super clean guy! From his mouth come these wonderful words, "Christ Jesus came into the world to save sinners, among whom I am foremost of all" (v. 15). From youth, he accepted and practiced God's every command, yet he claims this trustworthy statement applies to him. Why would Paul consider himself to be the worst of all sinners? What is it that makes him think this way?

Throughout human history every imaginable evil deed and word has occurred. You and I know that in the world today there are some really bad people, many behind prison bars for the crimes of murder, rape, kidnapping, robbery, extortion, etc. Everyday you read in the newspapers or hear on the news of the heinous sins people commit against others. As such, you tend to think that you aren't so bad. You are inclined to believe that there are worse sinners than you. It's hard to even contemplate how Paul could be the foremost among sinners. It's difficult to believe because you often don't feel what is your own sinfulness. You don't fathom the value of sin! Actually, you are not shameful for your sin. How awful it is not to know how very wrong you are! Have you thought about how bad you really are?

I hope we have the tears that manifest Paul's repentance. He really understood the depth of God's mercy. He knew the grace of God. He grasped the cleanness of the Holy Spirit. He comprehended that the Son of God died for Him, and that all sin deserves the wrath of God. Even though he was the master of sin, Christ forgave him and made him an apostle. That's why he declared, "It is a trustworthy statement, deserving full acceptance, that Christ Jesus came into

the world to save sinners, among whom I am foremost of all. Yet for this reason I found mercy, so that in me as the foremost, Jesus Christ might demonstrate His perfect patience as an example for those who would believe in Him for eternal life" (vv. 15&16). What encouragement! Only the Lord God's absolute perfect patience saved Paul from his sinfulness. And the good news is that we still live in the time in which it is still available.

Do you recall the kind of man Paul

The faith and love which are found only in Christ Jesus showed him the truth. How do these words of his conclude the Gospel? By the mere mention that "it is a trustworthy statement." That's this Bible verse! It is a trustworthy statement! Paul wraps it up so beautifully in just saying, "Christ Jesus came into the world to save sinners, among whom I am foremost of all." He saw the light and the light showed him his darkness, and his desperate need for salvation.

talking in the present tense—not the past. He didn't say, "I was the foremost of sinners" but rather "I am" the foremost of sinners. Sin continues to grip even the redeemed. Even though Paul killed Stephen and God forgave him for that, he couldn't forgive himself. He wondered, "How could I have killed him?" He understood himself to be the most terrible sinner. Isn't that a trustworthy statement? Even if you are the most sinful of human beings, God will forgive you in Christ. He has perfect patience for eternal life. Just listen to Paul's words. "To me, the very least of all saints, this grace was given, to preach to the Gentiles the unfathomable riches of Christ" (Eph. 3:8). Amen! To the least His grace extends and empowers. This is the Gospel my friends. This is the only hope of life!

Peter also tells us, "The Lord is not slow about His promise, as some count slowness, but is patient toward you, not wishing for any to perish but for all to come to repentance" (2 Pet. 3:9). God doesn't view time as we do. The seeming delay of Christ's return is because God desires for more people to repent. Isn't this a trustworthy statement? Once more Paul says, "It is a trustworthy statement deserving full acceptance" concerning godliness above bodily discipline (see 1 Tim. 4:8&9). And again he tells us, "It is a trustworthy statement: For if we died with Him, we will also live with Him (2 Tim. 2:11). Whatever regards the Gospel, it is really trustworthy.

Paul's words in today's message are truly wonderful. If you don't understand these wonderful words, then you don't understand the Gospel. As a Christian, when you look upon the lost you must think to yourself, "But by the grace of God there I go." If it wasn't for Jesus and His cleansing blood, your position would be no different than theirs. All sin is terrible, and the price for any sin is death.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Rom. 3:23). Isn't this the very best of news to hear that Jesus came into the world to save sinners? To save you? 

*Jesus came into this world.
He abided in the Word. Actually,
He showed up on this earth so that whoever accepted
Him would not perish but receive eternal life.
That's the Gospel! That's the secret of God!*

described himself to be before he experienced the grace of Christ? He said, "I was formerly a blasphemer and a persecutor and a violent aggressor. Yet I was shown mercy because I acted ignorantly in unbelief" (v. 13). Without Jesus no one gave him or could give him mercy. The pious Jew from Tarsus was nothing like his outer image. He was ignorant, not smart. He was an enemy of God, not a lover of God. He was an unbeliever, not a believer. Finally, Paul from Tarsus changed! Amen! Now, he recognizes that he is the foremost sinner of all. He saw and accepted the cross. He understood why Jesus went down and down. The churches of Judea heard, "He who once persecuted us is now preaching the faith which he once tried to destroy" (Gal. 1:23). Not only that but Paul tells us, "And they were glorifying God because of me" (Gal. 1:24). Isn't that amazing? That's how much the Law abiding Paul changed!

Paul's wonderful words really finalize the Gospel. He really confessed through his own experiences the dramatic turn around of his belief system. His ignorance turned to wisdom through the way of salvation.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what is the real Gospel? Jesus came into this world for sinners, and sinners apply to everyone, not just the people who make the headlines. Everyone is a sinner and stands guilty and accountable before God. From murder to gossip, all sin is detestable to God. If you believe this trustworthy statement—that's it! It really appears in the revelation of God. Jesus came into this world. He abided in the Word. Actually, He showed up on this earth so that whoever accepted Him would not perish but receive eternal life. That's the Gospel! That's the secret of God! He came to this earth of His own will. He came as a human being. God's will came down to people through suffering and obedience. So, the method of salvation is the same for us. We Christians must suffer and obey, knowing full well that our pain is great but our joy is greater.

Sinners need salvation. They don't deserve salvation, but whoever accepts Jesus, whoever believes in Him, he can be saved. This is a trustworthy statement! When Paul mentions that he is the foremost of sinners, he's



김성권 목사

미쁘다 이 말이어

(딤후 1:15-16)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고수니라”

가장 도덕적인 자의 고백

길리가야 지방의 주요 도시 다소에서 대난 바울은 할례받은 유대인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이었으며 바리새인으로 훈련받았었다. 그는 종교적으로 많이 공부하여 동료 중 누구보다 탁월한 학문적 소양을 갖추었고 율법에 충실했었다. 더욱이 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참으로 진지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가 당대의 누구보다 윤리적이고 경건한 자였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비할대없이 깨끗한 사람(super clean guy)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그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무엇입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고수니라”(15절). 짧은 시냇물 하나니의 모든 재물을 받아 실천한 그가 참으로 진심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가 자신을 죄인들 중에 파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예외없는 죄인들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악한 말과 행동은 다 등장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저절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인과 강간, 유괴와 강도, 직권남용 등으로 철창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달같이 신문물을 통해서 극악한 범죄소식들을 읽거나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나만큼은 그렇게 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바울이 어떻게 해서 “나는 죄인 중에 파수라고 고백할 수 있었는가”를 묵상하지 않고 아무도 아닙니다. 우리가 파수의 죄는 죄성을 잘는 것이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그 깊은 죄의 깊은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에 대하여 무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모른다라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요! 여러분은 자신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회개는 눈물이 아니라

저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전하는 회개의 눈물이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소

원합니다. 그는 모든 죄악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다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죄인 중의 파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바로 이로 인해 그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고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시 후 어두운 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분이 되게 하려 하시기니라”(15-16절)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절대적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인내가 바울을 그의 죄성으로부터 건지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전히 효력이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 이 바로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시라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기억하십시오. 그는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회망하고 꾀박하고 포항하지 못하니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믿고 하고 행하였음이라”(13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라면 그에게 긍휼을 베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소 출신의 그 경건한 유대인이 실은 그의 외모만큼이나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례에 대하여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그는 불신자였습니다. 전혀 믿는 자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다소 출신 바울이 변화되었습니다. 아멘! 변화한 후, 그는 자신이 죄인 중의 파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보고 받아들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렇게 낫고 맑은 곳으로 내려가셔야 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회개했다는 소식이 유대인에게는 성도들의 귀에 들렸습니다. “나도 만일 악마가 영감을 주지 전에 전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들을 듣고”(갈2:13).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만일 악마가 영감을 하나님께 돌리니라”(갈2:14). 놀랍지 않습니까? 율법을 쫓던 바울이 놀랍도록 변한 것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어

바울은 실로 자신의 믿음체계를 송두리째 변화시킨 극적인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의 무

지는 구원의 길에 대한 지혜로 변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그에게 진리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가 복음에 대하여 겪었던 말쑥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는 매우 단순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어”. 성경말씀이 바로 그러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어”. 그리고 이 단순한 진술 위에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덧붙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고수니라”, 그는 빛을 보았고 그 빛은 바울의 어두운 골 구원을 향한 그의 필사적인 갈망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진정한 복음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진정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누가 죄인입니까? 모두가 죄인입니다. 누스의 첫머리를 장식하는 죄인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살인에서 자살한 허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여러분이 “미쁘신 그 말씀”을 믿으신다면 그것으로 다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실로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기를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고난과 순종을 통하여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길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받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통이 아무리 커도 기쁨으로 바로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들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들은 구원받기를 원하지 못하지. 그들은 구원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미쁘신 말씀”이요, 참으로 믿을 만한 진리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죄인의 파수라고 했을 때, 그는 자괴 율법 아래 있는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의 자신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그는 “내가 죄인의 파수였다”가 아니라 “내가 죄인의 파수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죄는 구속 받은 성도들도 계속해서 붙잡고 있습니다. 스테반을 죽인 바울은 자신을 용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의아해하면서 “내가 어떻게 그를 죽일 수 있었을까?” 하고 번민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극악한 죄인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용서 하셨습니다. 이와같이, 비록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절이 나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일절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이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종성을 이 방편에 전하게 하시고”(롬3:8).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주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까지 미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생명의 소망입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베드로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니라”(베후3:9).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늦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이르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미쁘신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은 육체의 연금보다 정신이 더욱 유익하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다시 한번 이것을 말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다”(딤후2:11). 또한 관개된 것은 무엇이나 참으로 미쁘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잃어버린 자를 바라보 실 때마다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말 씀해야 합니다. “나도 지극히 죄악이다. 그러나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만일에 예수님과 그 깨끗하게 하시는 피가 없다면 여러분의 자리가 저 잃어버린 자들의 자리와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죄악은 두렵고 그 깊은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리라”(롬3:23). 예수님께서 죄인, 곧 여러분을 구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소식이야말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

몽골의 날 The day of Mongolia



이미 회 (외선부 교사)

스리랑카의 날이 은혜스럽게 끝나고 몽골의 날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몽골팀이 스리랑카처럼 열정적으로 행사를 준비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몽골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몽골 형제 자매들이 스스로 준비하여 복음을 몸소 체험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몽골 사랑들 스스로 실내를 장식하고 찬양, 연극, 안무, 간증, 악기 연주를 준비하면서 몽골팀으로서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과 몽골팀의 모습을 각국 근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몽골 신생들도 놀랄 만큼 신속한 찬양 인도와 제지하는 연극은 몽골인들의 기도와 준비가 대단했음을 알 수 있게 하였고 플루트와 바이올린 찬양연주는 여러 가지로 지쳐 있는 8개 나라의 외국인 형제 자매들과 신생들의 마음을 풍성한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주었으며 몽골어로 전한 민병웅 전도사님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구원을 열정적으로 외쳤으며 250명의 많은 외국인 성도들이 이연하며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몽골 사랑 자치체 호호는 모슬렘의 종교를 가지고 한국에 일하러 왔다가 친구의 권유로 총회교회에 나와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이제는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게 되었다고 간증

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은혜인가! 한국에 나와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관심과 사랑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이방종교에 빠져 있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선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직은 선교사로 나가지 않았지만 선교현장인 총회교회 외선부에서 훈련을 받고 하나님께 정해주시는 때에 몽골로 선교사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몽골의 날을 맞이한 8개국의 형제, 자매들은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몽골을 위해 모금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액수가 모아진 것은 아니지만 따뜻한 생활 속에서라도 내놓는 정성들이 외선부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 주었습니다. 부끄럽게 시작했던 이 행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복음을 피상적으로만 알았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총회교회에 애착을 갖게 되고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통해 하나님을 이룬 몽골팀이 앞으로 더욱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여 열적으로 성숙되어가는 일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지에 있는 자녀에게 보내는 어머니의 편지
우간다에 간 보고 싶은 경성에게

하나님의 크고 높은 뜻을 알지 못하여서 괴로워하며 나는 할 수 없다고 하엿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것에 굴복할 수 없는 나 자신을 생각하면 무고롭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또한 감사하네. 네가 신학대학교에 갔을 때 산기 속에서 자취하고도 산속에 혼자 두고 오면서 언제나 나를 성급히

로 떠나 보낼 것을 생각하며 나는 좀더도 못한다고 얼마나 울고 하나님께 반항했었지... 그러면서 맘에 창상 내뿜어 통곡이 멈추는 편이 생기기 죽음의 그늘 속에서 5년이란 세월을 지내면서도 못 배다고. 나는 14기를 마치고 학교 안다닌다고 다른 학교를 간다고 하여 힘들때 "나는 갈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십시오 어디 가야 출종지 나를 인도하십시오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하야 출종지 나를 가르치소서" 맏아들아 이 찬송을 부르며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더니 수없는 시간 모던 날 꿈에 외국어대학 보여주시고 과도 정하게 하고 인도하시며 이제 와서 생가하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대로 인도하심을 또한 내게와 내대로 안된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느니라. 추남께서는 먼저 당시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소원을 주시고 인도하시는데 영하는 아직도 세속적인 생각과 착하여서 나를 힘들게 했던 것 용서해주고, 이제 아프리카 우간다에서도 지방사역을 지원하고 파르모자에 원수인 있는 곳으로 가서 가장 가난하고 열악한 자들에게-복음을 전하고 건국감독으로 일하게 하신 추남께 감사한다. 파르모자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날은 5시간동안 침묵을 하고 마냥 울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내마음 평안이 넘치고 아무 열려 근심이 없어지는 것을 생각한 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감당할 은혜 주시는데 또 놀랐네.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21세기에 평신도사역시대에 무엇을 어떻게 인도하시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사를 들으며 순종하는 아들이 되기를 기도한다. 한국에 돌아와 때까지 항상 많은 총현의 식구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며 힘내고, 힘내고 지혜로운 차로서 많은 열매를 맺고 돌아와야...

사랑하는 어머니가

*황경식 군은 지난 1월 단기 평신도선교사로 파송받아 현재 우간다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써주시는 하나님 계시기에 감사

이 부 웅(집사, 외선부 교사)

'화요순천행복원전도'가 지난 3월로 구영자 집사님, 장복희 집사님 그리고 3명의 간도사의 도움으로 시작되었지만 6년이 되었다. '99년부터 3교구 루디아 전도회이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권면, 김영자, 김영구, 김영애 집사님들이 각 병동에서 복음을 전하고 개인 환자를 침복하고 돌보고 기도한다. 환자들이 잘 잊고 아파하며 시작되었던 육신의 고통만이었으면 물질의 고통까지 떠난다고 가족에게 버림받은 이들에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 전도를 맨처음 시작한 때 나 지금이다 '이들이 고통도 물질도 나눌 수 없이 이 사역을 그만두어야겠다'고 병인 복도에서 울면서 기도할 때 '내 이름이 환자의 고통보다 물질보다 못하네'는 주님의 음성에서 다시 되돌아와 갈 수 밖에 없었다. 예수님을 모르던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극한의 고통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던 모습, 이제 자신은 하나님께로 가므로 다음을 만날 수 없으니 천국에서 만나자던 그 어느 주일날 새벽 그토록 소망하던 하

남인 나라에 갔다. 올해 5살로 백혈병으로 투병중인 꼬마 어린이. 한달 이상 고열이 시달려 구토와 설사가 계속되어 얼마도 어린이도 지체없이 퇴원하는 상태였다. 지난주 화요일에 무당집에 들어가 만났으나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어 한참을 침묵하고 돌보고 기도할 때마다 어린이가 제열 먼저 떠오른다. 가끔 질문을 따르네. "병인원 도는 어떻게 하나?" 라고 물으면 나는 할말이 없다. 부족하지만 써주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감사하며 한주 한 주 나가다 보니 여기까지 왔을 뿐이라고 또 동역

하는 집사님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에 병원전도는 중단되지 않았다. 언제까지 이 일이 계속될지 모면 주권 어떤 환자,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른다. 필요해서 보내주시 필요한 만큼 써주시리라는 믿음으로, 육적인 치료보다 영적인 치유가 더 절실한 그들, 이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리 앞에 병인 전도팀은 오늘도 무릎을 꿇을 뿐이다.

육적인 치료보다
영적인 치유가 더 절실한 그들,
이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리 앞에 병인 전도팀은
오늘도 무릎을 꿇을 뿐이다.

전도자의 길 걸기를 소원하며

서 옥선 (집사, 5교구)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고후 5:17).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우리 주님의 회생으로 영생을 얻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큰 은혜인지 생각하면 할수록 이 놀라운 사명에 나는 기쁘고 행복감을 느낍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열심이 없고 꾸준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결혼과 동시에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였다고, 첫 심

분이 계신데 나의 첫 구역장이십니다. 구역장님은 성품이 온유하고 은혜가 풍만하신 분으로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분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특별한 좋은 만남을 통해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요즘 전도하러 먼저 만났던 많은 사람들에게 앞으로 만날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전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나에게서는 많은 삶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하루하루 사는 것이 나에게서 기적이요 한걸음 한걸음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을 깨닫고 기도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나는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저 천국에서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의 길을 걸기를 소원하며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나에게는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준



“나의 나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태 갈리나 (외산부 우즈베키스탄팀 동역)

92년도 우즈베키스탄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때 새귀기도에 나가고 회화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사업실패로 인해 빚이 산더미같이 되어 더 이상 우즈베키스탄에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빚쟁이들로 인한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법인 줄 알면서 한국에 와서 1년 동안 돈을 벌고 다시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가기로 가족들과 함께 결정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잊었는데도 가만 갈수록 돈은 모이지 않고 고통하듯 함께 심령이 병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생각으로 인해 죄책감이 시달렸습니다. 1년후 다시 돌아가기로 했는데 세월이 많이 지나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저는 자녀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호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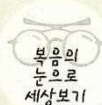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느날 “너는 왜 열려하나냐 네가 열려한다고 너희 자녀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 라고 주님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다시금 가족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고향으로부터 돈 벌러 가 놓고 예수에게 미쳤다는 소문이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기도하며 인내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의 열매로 저희 딸이 모스크바에서 사역하는 전도사와 결혼하며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또 막내아들도 예수님 영접하고 주님께 헌신하게 되었고 모스크바 ‘한사랑 공동체’에서 훈련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자녀들이 방황하며 놀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열려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주님께 자녀들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 하셨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성숙을 통해 주님은 저에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우즈베키스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기도원을 세워서 영혼들을 섬길 것에 대해 계속해서 소원하기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처할 곳이 마땅치 않았는데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충현교회와 연결되어 의정부에 입퇴를 하라며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또 부족하지만 우즈베키스탄 영혼들을 통역으로 섬기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떤 때는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하나 나 자신도 돌아보지 못하고, 가족들도 돌아보지 못하고, 그들을 위해서 나의 시간, 물품, 모든 것을 드려야 하나’라는 질문을 내 마음에 던지곤 합니다. 그렇지만 그 영혼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저의 기쁨이고 소망인 것을 느낍니다.

충현교회에 있을 동안 더 실질적인 것과 영혼들을 섬기는 것들 여러모로 더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나뉜 것은 하나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인제는 주님께서 저를 돌보아 주셨고 또한 주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어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말들을 통하여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김성관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외산부의 장로님과 권사님 기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선거철이 되자 세상은 겉잡을 수 없는 난장판이 되어 가고 있다. 권력을 향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집주자는 욕망의 전지를 물고 가는 사람과 이에 편승하여 취보리만한 이익이라도 쟁취하려고 난무하는 생각없는 사람들이 벌이는 추태를 순간순간 지켜보아야 하는 곤혹의 날입니다. 이러한 혼돈의 때에 기독교인들은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할까?

기독교인들이 범하기 쉬운 오류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들을 세상에서 관심을 거두는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이다. 세상이야 어떻게 돌아가든지 아랑곳할 것 없이 나는 내 믿음만을 지켜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은 무책임한 태도이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 행해지는 불의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바로잡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옳다. 시대의 위기의 현상에는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로운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는 것이 그것을 증명해 준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불의를 감시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선거일이 하루하루 다가오면 있는 요즈음 선거관에서 쟁취한 정당이 되는 것은 남배와 명목문제다. 다른 것을 차지하고라도 국민의 기본권인 의무인 납세와 병역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나선다는 것은 참으로 불충분하다. 그래서 그들에게 관심을 커녕 눈길 한 번 주기도 싫지만 그렇다고 외면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옳지 않다.

누군가를 당선시키기 위한 참여가 아니라 불의한 자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 특별히 성실납세자들과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마음을 즐기는 보통의 선거권자들은 납세와 병역의무를 패한 정당이 어떤 후보를 멸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일에 수구방관하고 있다면 누가 honest한 세상을 보고 예봉해할 것인가.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면 세상 역시 세상의 눈으로 복음의 세계를 주시하고 있다. 복음의 세상에도 부끄러움 없이 많은 요즘 정말 나무부터 복음에 부끄러워 않은 기독교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정현의 기자)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윤향선’ 성도를 소개합니다



△왼쪽에서 계신 분이 윤향선 성도입니다

교회에 등록하신 지 작년 7월, 전도를 많이 받고 교회의 결정을 미루고 있는 중에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하고 항암치료를 받던 중 뇌로 암이 전이되어 다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어려움을 겪으며 성경을 읽고 찬양하며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며 또 남편과 주님의교회에 새로 받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힘든 치료과정에도 몸도 마음도 지지 않을 뿐 아니라 합니다. 딸의 믿음생활을 도와주시고 같이 기도하시는 친정어머니께서 매주 새가족부에 동행하셨습니다.

윤향선 성도는 긴급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통하여 남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 예수님 믿도록,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시라 단장 주시고 치료와 회복이 빠르도록, 한옥정(새가족부 통신원)

새가족을 위한
또한결심①



교회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변에는 십자가를 높이 세운 수많은 예배당들이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이름이 있고 소속된 교파가 있습니다. 큰 예배당부터 지하실을 빌려서 모이는 작은 예배소까지 다양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마다 그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들은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결코 사람 중심의 단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최대의 목표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죽은 자를 살리며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의 교훈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는 곳입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 모든 일꾼들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입각하여 교회를 섬기고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바로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사명을 실제로 할 수 없습니다. 새신자들이 간혹 교회에 나와서 평소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모습을 접하고 당황하거나 갈등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나아간다면 이러한 일로 당황하거나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의 가르침이나 의견도 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어야 하고 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람은 바뀔 수도 있고 소속된 교회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새가족부에서는 6개월간의 양육, 적응, 통신반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권하시는 완전한 교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김영숙 (전도사, 새가족부 부지도)

구역예배 엿보기

12교구 남성도 구역예배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며

내 입의 찬송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영환 (집사, 중동3부교사)



내고향은 충청도 옥천이래요. '개천에서 용났다'이 말은 동네 아주머니들께서 나의 어머니에게 하신 말씀이다. 예수님과 옥천 촌놈이 출세했다는 말이다. 그렇다 나는 예수님과 구원받았으니 세상에 태어나 이보다 더 큰 출세가 어디 있단 말인가. 나는 예수 믿지 않는 집에서 태어나 예수님과 부모님, 고모님, 7남매가 모두 예수님과 구원을 받았다. 오직 내 아내 최수자 집사의 기도와 사랑과 헌신으로 지금까지 지내는 은혜에 감사를 드린다. 제사를 주도예배로, 유교문화를 기독교문화로 직장에서는 신우회도임으로 상사 및 부하를 전도하고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오심 평생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삶을 전할 수 있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피값으로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광야의 길을 넘어서 걸어 올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찬송가 43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아무때나 어디서나 늘 지켜주시라'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영의 약속이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유복하고 애통하라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였으니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요16:20). 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새기면서 주님 재림의 그날까지 이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전도하며 모이면 떡을 먹고 친교하며 살아가리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에 밀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라 어려울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라 내 고향 떠나고 나서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라 어려울 시련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구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라. 아멘."

일러두기

하나님의 사람답게 일하는 것

김수진 (청년부, 7동동)

강남구 역삼동 충현 남길 14번

지... 이곳은 바로 내가

꼭꼭 눌러서 3년이라는 귀

중한 시간을 보낸 곳이다.

내가 몸 담고 있는 충현북

지관은 1995년도에 개관

한 정신치제 장애인 복지

관으로서 장애인들, 청소년,

성인들을 위한 전문치

료 및 체계적인 복지 기관이

다. 충현 복지관에서는 아동들

을 위한 조기교육(특수 유치원), 청

소년들을 위한 방과후 교실·주말교

실·체육교실·캠프 등의 프로그램을

실현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

이라고 정의를 할 수 없고 이 과정을 통해 나는 내 자

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고, 실제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직업'과 '수용'이라는 과정 속에서 성장을

향한 몸부림과 아픔도 있었지만,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인정함으로써 자유함과 해방감을 얻을 수 있었

다.

복지관은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여러 가지 것들을 내

게 가르쳐 준 계기로 회고하고 할 수 있다. 감히 장애에

나를 가진 부모님의 심정을 온전히 다 이해한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이분들과의 상담을 통해 마음으로 전

달되어지는 아픔들, 직장 내에서 사소한 것은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입사 초기에는 새로운 일

을 배우는 기쁨과, 직장

동료들과의 사귀에서

오는 즐거움, 일로부

터 얻어지는 성취감

과 인정을 하는 동

기기가 되었다. 시간

이 흘러감에 따라 감

사함으로 첫 직장생

략받은 그 기쁨은 온데간

데 없이 사라지고, 내가 삶

의 주체가 되어 이끌어 나가고 있음

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내려 놓을 수 있

게 나를 인도하셨으며, 감사함으로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

도록 내 마음을 바꾸어 놓으셨다.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내 것이 없으니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업무들과 말

고 있는 아이들 또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 내

게 잠시 허락하셨다고 믿는다.

나의 작은 소망 한가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일

터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일하고 생활하는 것이다. 신

실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

셨으니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

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길

를 간절히 기도한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취 주시고, 나의 작은 믿음에

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

만 바라볼지라. 〰

사모님들
목양관 구역예배

지난 24일 오전 11시 제2목양관 201호(전철충 목사 대)에서 사모님 여덟분이 구역예배를 위해 모였다. 충현빌라, 제2목양관, 제3목양관에서 각각 매주 금요일마다 구역예배로 모이는데, 이두란 원로전도사님께서 인도를 담당하신다. 이날 전도사님은 팔야 교회(당7:30~38)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다.

"광야는 예수를 떠나 가나안에서 들어가기 위해 훈련 받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개인마다 교회마다 가지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성도는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 구원을 받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내로직자가 되어 버립니다. 훈련은 힘이 듭니다. 훈련은 내로직자 없고 항상 똑같습니다. 그러나 훈련 잘 받은 군사는 승리를 확신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는 시험 가나안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친 후, 이두란전도사님과 여덟분의 사모님들은 우리 교회와 당회장 목사님과 구역장님과 성도들을 위해 나눔을 하고자 기도했습니다. 찬송43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라'를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마친 후 사모님들은 각자 준비해 온 음식들을 꺼내어 놓으셨다. 고사리 볶음, 불동 두부, 청포묵 무침, 호박나물 무침 등... 꽃샘 추위 때문에 바깥은 바람이 세게 불고 있었지만, 다 함께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정담게 담소하는 사모님들의 모습이 마치 오래된 친구를 같았다. 여덟분이 고루 나누어 만드신 이날의 비빔밥은 정말 맛있었다. (이명희 기자)

지체들 소식

유아부
주기도문 외우기대회

지난 26일 '주기도문 외우기대회'를 했어요. 3월 한달동안 집에서 엄마와 외운 것을 친구들 앞에서 외우는 친구도 있고 너무 부끄러워서 엄마부터 숨은 친구도 있었어요. 앞에 나와서도 못했더라도 그동안 외운 것이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새겨졌으리라고 생각해요. 큰소리로 했거나 조그마게 웅얼거렸거나 예수님은 다 들으셨을거예요. 아이들과 외우느라고 애쓰신 어머니들, 고맙습니다.
(임미순 통신원)

사랑부
분반공부의 새로운 시도

지난 주일 2부 분반공부 시간에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해산'에 대해 공부했어요. 평소 각 과에서 담당교사와 학생이 일대일로 공부하였던 방법이 서 벗어나, 한 과 전체 인원이 대동로 나와 사탄교사와 학생이 공부하는 모습을 여과없이 보여주는 방법이었다. 다른 과에서는 분반공부 모습을 보고 좋은 면은 받아들이고 문제점은 지적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방법이 대대논의해 보았다. 이러한 새로운 시도들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한 주 한 주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고 변화하는 사랑부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민혜정 통신원)

장년3부
60대의 신앙생활

'60대의 신앙생활'이란 제목으로 구명신 은퇴전도사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다. 60대인 몸은 쇠약해져가며 신체의 곳곳이 무너져갈수록 느끼게 될 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은 복음으로 생명이니 자라가 때문에 그 영들은 잃지 청정한 나무처럼 자라가게 된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어 예수님의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고 자라가야 할 것이다. 후시 경로당에 가서 불신자들이 어울렸던 날 오로부터는 그들과 휩쓸리지 말고 내 신앙을 자신이 지킬 줄 알아야 했다. 60대의 충현의 성도들은 몸도 영도 잃지 청정하고 결실을 맺는 아름다운 삶을 계속하기를 권면하였다.
(염미숙 통신원)

소망부
중창 경연대회

지난 3월19일 각 과별로 팀에서 5명 이상 15명 이하로 팀을 정하고 한과에서 열심히 연습하여 아주 은혜스럽게 진행이 되었다. 중창팀이 나가서 찬송을 부를 때 모든 학생들이 많은 은혜들을 받은 의미가 있는 대회였다. 엄격하게 심사해서 1등부터 3등까지 구분지어 주어진 상품도 있었다.
(이형주 통신원)



합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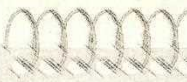
대에서는 '친청합혜'란 프로그램

를 만들어냈다. 이 친청합혜에는 대원들 누구에게나 청한할 자격이 주어진다. 대원들의 친교와 나눔의 시간이 될만한 이런 프로그램으로 인해 합혜부가 찬양대가 사랑으로 하나되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청한해 가는 모습들을 기대해 본다.

은동정

대에서는 '친청합혜'란 프로그램

를 만들어냈다. 이 친청합혜에는 대원들 누구에게나 청한할 자격이 주어진다. 대원들의 친교와 나눔의 시간이 될만한 이런 프로그램으로 인해 합혜부가 찬양대가 사랑으로 하나되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청한해 가는 모습들을 기대해 본다.



물매들

물에서 무엇을!

구 재완 (침사, 고동부 교사)

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다시 말해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원리요, 동서고금의 진리요, 절실한 것이다. 즉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를 뿐 아니라 깊은 무질서로는 흐르지 않는다. 또한 물은 그곳에 닿았을 때 그곳의 모양에 따라 그 모양이 달라진다. 물이라는 본래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언제나 변함없는 물과 같이 어떤 환경에도 적응하여 아무리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양심에 따라 바르게 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물은 한곳에 고여 있는 물이 되어서는 안된다. 한곳에 있으면 썩어 사용할 수 없고, 또한 썩은 물에는 고기같은 것도 살 수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흐르는 물과 같이 항상 신선하고 새로워야 하며, 또한 많은 사람에게 전해질 때 자신의 믿을 성장은 물론 하나님 나라도 확장되어진다. 거대한 호수나 바다에 있는 물과 같이 되어야겠다. 조그만한 웅덩이의 물은 작은 돌에도 충돌당해 변하지만 거대한 호수나 바다에 있는 물은 바위와 같은 큰 돌이 굴러 떨어져도 충돌당해 변하지 않는다. 사람들도마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우리 신앙인 모두는 물과 같이 조용히 동요없이 신앙생활에 임하는 것이 어떨까...

탐방

벨렐여성중창단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는 이들



사람마다 그 생각새와 개성이 다르듯이 공동체마다 그들이 품기는 느낌은 각각이다. 그러기에 언제나 새로운 공동체를 만날 때는 사물에 대한 호기심으로 마음이 설레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번 주일에 만난 벨렐여성중창단이 주는 이미지는 품위에 맺힌 이슬같은 청아함이라고나 할까?

벨렐여성중창단은 벨렐중앙대 소속의 솔로이스트들을 중심으로 1998년에 창단되었다. 한 부처에서 같은 목표로 일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모임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생기고 그때 구성원들이 동조하게 되면 새로운 공동체는 탄생한다. 그런 맥락에서 지도를 하시는 안희정 선생님을 비롯 11명의 성악전공자들의 참여로 벨렐여성중창단이 창단되었다. 이들은 예매전 찬양과 주일찬양예배와 금요찬양예배 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그 외에도 자신들을 원하는 부처가 있으면 시간이 허락하는 한 언제나 초청에 응하여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준다.

이들은 목요일 저녁에 만나 정기연습시간을 갖는다. 이들은 자신들이 느끼는 찬양이 예배를 돕는 온전한 찬양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열심히 연습을 한다. 그러나 자신들의 열의 좀더 정제해지기 위해서는 정기연습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한달은 한 번은 특별기회를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다. 이 기도회는 단원 중 유일한 기혼여성인 안철희 선생님께서 가질 예정인데 지금도 아내의 찬양활동을 위해 아기를 돌보는 일을 차치하는 안생생 남편의 특별한 의지를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이 모임은 구성원 전제가 전공자들인 그 성격상 특별한 지도자가 필요없다며 사생활 안철희 선생도 자신을 지도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단원일 뿐이라고 겸손해하며 이 중창단은 모두가 지도자이고 모두가 대표인 공동체라고 한다. 이 모임의 막내 최지혜는 이 모임에서 음악적인 면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는다 고 한다. 늘 깨어 있는 성숙한 신생활 덕분에 자신도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며 그래서 벨렐중창단에서의 활동이 행복하다고 말한다. 선주배간에서 서로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이들의結束력은 끈끈하다. 물론 때때로 위기 때 처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기도와 찬양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공동체는 힘이 있고 아름답다.

이들이 입을 모은 것은 한결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찬양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고만하진 않고 겸손하며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는 안에 그들의 한때를 헌신하는 젊은 여성들의 모습이 아름답다. (원현희 기자)



유치부

는 지난 2주에 걸쳐 섭례함과 사도신경 외우기 대회가 있었다. 꽃반과 열매반으로 나누어져 있는 유치부들, 그대반이 섭례함을 외웠으며, 꽃반은 사도신경을 외우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었다. 섭례함과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을 통해 어린 아이들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자리하기를 바란다.

Q. 남편이 교회에 나오진 나오는데, 너무나 미혼적이고, 심지어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조차 싫어해서 은근히 방해하기도 합니다. 남편과 더불어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봉사도 함께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먼저, 질문하신 분이 잘 아실 만한 성경말씀을 상기시켜 드렸으면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여자에게 말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나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여짜울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아내를 구원할는지 여짜울 수 있으리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이 말씀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라고 하기는 어려울지라도 그 상황에 적절히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분 남편의 경우에는 불신자는 아니지만, 봉사를 싫어하고 아내가 봉사하는 것도 막고 지 하는 것을 보아서 아직 신앙이 무척 어려구나 하면, 교회생활에 대한 상처나 편견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일단 남편과 맞서서 논쟁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고만하거 아내가 자신 스스로 감당해야 할 남편에 대한 사랑을 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그런 가정에서의 아내의 자세는 남편의 상태를 믿을없는 불경건으로 단정하여 무조건 교회봉사를 위해 기성을 포기하라는 것 일지는 아니합니다. 오히려, 남편에 대한 아내의 사랑이 남편을 거룩하게 가꾸는 것임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남편이 아내에게서 영적으로 깊은 호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하며, 아내를 남편을 얻는 영적 소득을 위해 모든 것을 양보할 준비를 하면서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물론, 모든 관계의 중추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말이지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이 '오래 참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